

여자농구 대표팀 “아시안컵 첫 상대 뉴질랜드 꼭 잡겠다”

7월 13일부터 중국 선전 FIBA 여자 아시아컵 출전
14일 뉴질랜드·15일 중국·16일 인도네시아와 경기

여자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서 첫 번째 상대인 뉴질랜드를 반드시 잡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여자농구 대표팀을 지휘하는 박수호 감독은 12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아시아컵 미디어데이에서 “첫 경기 뉴질랜드전이 가장 중요하다.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빠르게 공격해야 우리가 유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평가전 두 경기를 봤는데 뉴질랜드가 (호주와) 대등하게 하더라. 많이 는 것 같다”며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계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여자농구 대표팀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5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 아시아컵에 출전한다.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 속해 7월 14일 뉴질랜드, 15일 중국, 16일 인도네시아와 차례로 맞붙는다.

조별리그 B조엔 일본, 호주, 필리핀, 레바논이 편성됐다.

이 대회 우승국은 내년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6 FIBA 여자농구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최종 순위 2~6위는 내년 3월 여자농구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박수호 감독은 “목표는 ‘좋은 성적’이다. 우승도, 준우승도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4일부터 소집 훈련을 지휘한 박수호 감독은 “선수들에게 공격 시 공을 주고 서 있는 동작을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뉴질랜드는 신장과 체력이 좋아서 서서 하는 농구를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 밑은 ‘대들보’ 박지수(KB)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박 감독은 “정답은 없다. 디펜스를 여러 가지로 가져가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빨리 다른 수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팀 주장은 강이슬(KB)이 맡았다.

강이슬은 “예전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지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모두가 어떻게 좋은 경기를 하고 성적 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강이슬은 “지난 대회에서 뉴질랜드에 지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첫 경기가 뉴질랜드라 보니 꼭 이기고 싶다”며 설욕을 밝혔다.

한국은 2023년 아시아컵에서 첫 판 뉴질랜드에 밀려 1승 2패로 3위를 했고, 4강 진출전에서 호주에 져 올림픽 2회 연속 본선 진출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박지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진했던 이전



여자농구 아시아컵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박지현(왼쪽부터), 강이슬, 박지수, 신지현, 최이샘. /연합뉴스

경기를 만회하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2017년 자기가 세운 신인 3경기 연속 더블더블 기록을 넘어 역대 최초 4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작성한 홍유순(신한은행)과 대표팀에서 한술밥을 먹게 된 박지수는 “몸에 힘이 없어 보이는데 몸이 너

무 좋고 힘도 좋아서 놀랐다. 올 시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웃으며 “많이 성장해서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정재용 대한농구협회 상근부회장은 “여자농구 선수를 빨리 육성하고 팀을 빨리 만들어서 강력한

대표팀을 만들어내는 발을 일구는 게 협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팀이 든든하고 강력하게 버텨줘야 한다. 아시아컵을 앞두고 여자농구가 다시 4강 안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선수들, 광주 수영선수권 ‘금물살’

시체육회 정다연 2관왕·김지옥 금
유덕중 이선영 등도 메달 행진

‘2025 제4회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2일째 진행되고 있는 다이빙 경기에서 광주 선수들이 금메달 4개를 얻어냈다.

정다연(광주시체육회)은 11일 열린 일반부 혼성 3m 싱크로 경기에서 김지옥(광주시체육회)과 합작해 81점을 받아 금메달 포획에 성공했다. 12일 열린 1m스프링보드에서도 223.85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체육회 최강인, 김승현도 혼성 플랫폼 싱크로에서 84점을 받으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선영(유덕중)은 여중부 플랫폼 경기에서 189.25점을 얻으며 1위했다.

광양 선수들의 메달 행진도 이어졌다.

여중부 접영 200m 경기에서 이에서(동광양중)가 2분19초41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현지(청주중)가 2분19초67로 2위를, 김수아(대전체중)가 2분23초80으로 3위에 올랐다.



김지옥(광주시체육회·왼쪽)과 정다연(광주시체육회)이 ‘2025 제4회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대회’ 일반부 혼성 3m 싱크로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한수영연맹 유튜브 갈무리>

남초부 접영 100m 경기에서는 정희성(광양중마초)이 1분07초61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희운(동광양중)은 남중부 접영 100m 경기 동메달을 차지했다.

경영 종목 자유형에서도 메달이 나왔다.

여자일반부 자유형 50m에서 허민지(광주시체육회)가 25초92로 2위에 올랐다. 남중부 자유형 200m에서는 전민준(광주체육중)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대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광주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수영 간판’ 김우민, 광주 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 우승

한국 수영 간판 김우민(23·강원특별자치도청)이 컨디션 점검 차 출전한 자유형 200m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우민은 12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85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번 대회 김우민은 주 종목이 아닌 컨디션 점검 차 자유형 200m와 100m에만 출전을 신청했다.

김우민은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2025 국제수영연맹(AQUA) 싱가포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김우민은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3분42초7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우민은 다가올 싱가포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400m 2연속 우승을 노린다.

김우민은 경기를 마친 뒤 매니지먼트사 올댓스

포츠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오랜만의 경기다. 만족스러운 기록으로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긴장감도 덜하고, 몸에 힘이 잘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 오늘 함께 레이스를 펼친 김영범 선수와 싱가포르 세계선수권대회 계영 800m에서 협동해서 좋은 기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민은 13일에는 남자 자유형 100m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 청주서 한일 슈퍼매치

21일 3년만에 경기 재개

한국과 일본의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 슈퍼매치가 2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대한핸드볼협회는 12일 “두 나라 국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 경기가 21일 충북 청주 SK호스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핸드볼 한일전은 2022년 인천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다. 두 나라는 2008년부터 교류 경기를 통해 경쟁력을 올리고 두 나라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한일 친선 경기를 진행했다.

역대 전적은 남자 대표팀이 10승 1무 2패, 여자는 10승 2패로 모두 우리나라가 절대 우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전력이 좋아져 승패를 예상하기 어렵다.

일본 남자 대표팀은 2023년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우리나라를 꺾었고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에서도 준우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5위에 머물렀다.

여자도 2022년 한일전과 2023년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이 승리했으나 2023년 황제우 아시아게임과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는 모두 일본이 이겼다.

조영신(상무)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5월부터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며 이계정(삼척시청)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여자 대표팀은 최근 헝가리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남자부 경기가 오후 1시에 먼저 열리고, 여자부는 오후 4시에 시작한다. 남자 경기를 KBS스포츠, 여자부는 KBS-1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대한핸드볼협회 박노정 회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우리나라에서 핸드볼 국가대표 한일전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친선 경기를 통해 두 나라가 함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간 우애도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PGA 투어 BMW 챔피언십 2029년까지 개최

BMW 코리아, 5년 연장 계약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2029년까지 이어진다.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BMW 코리아는 LPGA 투어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연장 계약을 2029년까지 맺었다고 12일 발표했다.

대회는 기존대로 78명이 출전에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컷오프 없이 진행된다.

LPGA 투어 선수 68명이 나서고, 국내 골프 유망주 육성에 기여하고자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출전권을 줄 예정이다.

BMW 코리아는 2019년부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우리나라에서 LPGA 투어 대회로 개

최하고 있다.

2019년과 2021년에는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대회가 열렸고, 2022년 강원도 원주의 오크밸리 컨트리클럽, 2023년과 지난해엔 경기도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서원힐스 코스에서 펼쳐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BMW 코리아는 “독자적인 헤리티지와 지속 가능한 대회로의 차별화한 전통을 구축하고자 US오픈과 디오픈 챔피언십처럼 전국 각 지역의 명품 코스를 순회하며 대회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더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지역에서 2년 연속 열고 있으며, 지난 5차례 대회에서 25만명의 대규모 관중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6-5(목)-2025-7-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6월 07일(토) 16:30, 17:30 / 남구 푸른길 공연
-06월 14일(토) 16:30, 17:30 / 양산호수 공연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의 향해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